

박준영 지사 ‘광역경제권 탈퇴’ 발언 왜?

호남 선도사업 물타기하는 정부에 경고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6일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인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대해 ‘광역경제권 탈퇴’를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인 데 대해 전남도 안팎에서는 예상했던 발언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KTX 노선 선정과 관련, “성명서를 만들어놓고 정부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 정부의 비협조와 무관심에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 지사가 그동안 정부 고위관계자들과의 접촉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놓고 애초 취지인 ‘선택과 집중’ 방식과 달리 ‘나뉘먹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온데다, 핵심 지역 발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일개 부서가 진행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공론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것이다.

◇‘무늬만 국책사업’ 불만=박 지사가 16일 실국장 토론회에서 언급한 ‘광역경제권 탈퇴’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안현호 지

동력 동남권에 태양광 대경관에 배치 불만

말로만 ‘선택과 집중’… 지역여건 고려 안해

향후 진행될 국책사업 지역적 배려 노린듯

식경제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후판공장 준공식 자리에서도 ‘광역경제권 탈퇴’라는 말이 오르내렸다고 전남도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부가 수도권을 비롯,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2개씩 12개의 신성장 선도사업과 20개 프로젝트를 대표 산업으로 선정,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해놓고도 전국 각 지역으로 쪼개는 등 광역경제권을 부정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호남권 선도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사업을 선정하고 이 분야 핵심 프로젝트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 ▲LED 등을 정해놓고도, 동남권에 풍력부품산업 클러스터

를 조성하고 풍력부품 테스트베드를 선정하는가 하면, 대경권에는 태양광 테스트베드를 선정하는 등 스스로 광역경제권 취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는 광주·전남 지역 집중 육성 사업으로 선정했는데 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 나눠줘 버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나마 타지역에 비해 관련 인프라와 기업들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R&D) 사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전남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도 ‘무늬만 광역경제권’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지사의 포석은? =박 지사가 이날 던진 ‘메시지’와 관련, 전남도

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향후 진행될 국책 사업 등에서 지역적 배려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안 차관과 만난 이후 지식경제부 실무자가 전남도를 찾아 풍력 시스템 테스트베드와 모터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지원 등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는 후문이 돌리는 것도 이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향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이후 추진되는 ‘신지속산업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전남도가 역점 전략산업으로 추진중인 ‘해양·바이오산업’을 포함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가 비교 우위의 사업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해양·바이오 산업 분야를 선정, 정부에 건의해 집중 육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두고 있기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DJ, 수평적 정권교체 이뤄내고 서거

■ ‘5·18 사람들’ 지금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재판 통해 단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1주년을 맞으면서 당시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던 인물들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광주 시위대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언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8월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다. 하지만 그는 숱한 정치적 수난을 이기고 1997년 대선에서 승리,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뒤 노벨평화상을 받는 등 한국 정치사에 획을 그었다.

또 김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음모 사건에 휘말린 문익환 목사는 1994년 타계했고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의 장남 홍일씨는 병마

와 싸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 일선에서 왕성한 활동을 펴는 인사들도 많다. 무안·신안에서 재기를 노리는 한화갑 전 의원은 지난해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최근 경북도당 창당대회를 여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내년 총·대선을 앞둔 야권의 연대·통합 작업에서 각 정당과 시민단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한승헌 전 감사원장,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고은 시인 등도 시민사회 원로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당시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5·6공화국에서 군림하다 정치적으로

추락의 길을 걸었다.

신군부의 상징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당시 실세였던 정호용·허화평씨 등은 김영삼 정부 출범 후 12·12, 5·18 사건 재판을 통해 단죄를 받고 조용히 말년을 보내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며 연회동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종종 사저를 예방한 정치권 인사들에게 조언을 건네며 전직 국가원수로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002년부터 전립선암으로 와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은 최근 폐 속에서 한 방울 침이 발견돼 또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더 나빠진 상태다.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씨는 육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허씨는 미래한국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지을기자 jpkpark@kwangju.co.kr



미국 뉴욕에서 호텔 객실 청소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국제통화기금(IMF) 도미니크 스트로스-칸(62·왼쪽) 총재가 16일(현지시간) 뉴욕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영 지사 장녀 ‘조용한 결혼식’

외부 안알리고 친척만 참석

박준영 전남지사가 최근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큰딸 결혼식을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박 지사 측근들에 따르면 박 지사는 지난 7일 서울에서 가족과 친지들만 참석한 장녀의 결혼식을 치렀다.

영국 런던에서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큰 딸은 “개인적인 가정사인데다, 고위공직자로서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자는 뜻으로 알리지 않은 것 같다”면서 “지금도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불량 법씨 대책 왜 보고 않나”

박지사 실국장 토론회서 질타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6일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호품버스를 비롯한 정부가 공급한 보급중 법씨 발아 지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보고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전남에서는 호품버스의 발아 지연으로 인해 국립종자원이 전남 공극량 581t 등 712t 등에 대해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대체 종자 확보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일손마저 부족해 불량 법씨가 심어진 모판도 제 때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지사는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된 친환경 농업지구에 대한 허위 실적 보고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처

리했는지, 왜 보고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향후 인사 방식에 대해서 “실·국장이 해당 부서 직원들을 뽑을 때 실·국별로 서로 상의해 조율한 뒤 명단 가져오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라. 그래야 일 질하는 직원에 대한 선호도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실·국장도 직원들 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일자리 정보망 구축과 관련, “해당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취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는 한편, 전남에서 열리는 주요 문화·관광 행사에 대한 수도권 홍보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칸 IMF총재 체포…佛 정치지형 요동

2012년 프랑스 대선의 유력한 후보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국에서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면서 프랑스 정치 지형이 요동을 칠 조짐이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막론한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해왔으며, 내달 사회당 경선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왔기 때문이다.

뉴욕경찰은 14일 타임스 스퀘어의

소피텔 호텔에서 객실 청소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스트로스-칸 총재를 JFK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폴 브라운 뉴욕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32세의 피해 여성은 이날 오후 1시께 스트로스-칸 총재가 머물던 방에 들어갔다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나타난 총재와 맞닥뜨렸으며, 총재가 자신을 침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왔기 때문에.

스트로스-칸 총재가 이번에 성범죄

죄 혐의로 체포된 것은 그간의 구설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의 이미지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당장 사회당 대선 주자 대열에서 낙마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오브리 대표와 올랑드 전 대표, 세골렌 루아얄 전 대표 등 그동안 스트로스-칸 총재에 뒤졌던 다른 사회당 대선 주자들이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된 셈이다.

/연합뉴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 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 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방수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

쌍촌동 맛집 월화수에서
정확하고 깔끔한 퓨전 한정식을 맛보세요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고품격 퓨전 한정식
소중한 자리를 맛과 정성으로 고객님들에게 제공합니다.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로 친절하게
고객 한분 한분께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 없는 서비스와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리
역서스
지하철 호대역 3.4번출구
↓ 시내

5·18학생
교육문화회관

5·18기념
문화회관

시청

월 화 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37-28
예약전화 062-385-8080~1